

사노라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새파랗게 젊습니다. 이 경우 우리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신앙의 본질은 다음의 말씀 한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03:16)

그러기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새파랗게 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해 때문에 새파랗게 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살아 호흡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사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필자가 가장 즐겨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젊음’을 ‘우리가 간직한 신앙’으로 ‘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보면 아마도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나지막이 함께 불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고단한 인생을 살다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내 우리로 하여금 비추이게 하실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우리가 간직한 신앙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까닭에,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 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2)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매일 같이 하나님과 오순도순 속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3)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고단한 인생을 살다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내 우리로 하여금 비추이게 하실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우리가 간직한 신앙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까닭에,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이 땅위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삭개오(Zacchaeus)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직업은 세리장(稅吏長, Chief Tax Collector, Chief of Revenue Officer)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에게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고혈(膏血)을 빨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의 우두머리로 보아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눅 19:02)

삭개오는 마음속에 항상 자괴감(自愧感)에 휩싸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도 그의 동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자신의 동족들과는 달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까닭에, 마음 한 켠에는 삶의 회의(懷疑)로부터 비롯된 불안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풍요가 그의 삶에 넉넉한 평안은 주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에 일말의 평안을 얻고자 삭개오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돌무화과나무(Sycamore-Fig Tree, *Shiqmah*, **סיקמא**)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던 까닭에, 삭개오는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돌무화과나무에 오르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체면이고, 지위고, 품위고 간에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 삭개오의 집에 유(留)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뛰어 내려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내려놓은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눅 19:03-07)

예수님을 대한 삭개오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들뜬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벌어졌던 이 같은 놀라운 일에 그저 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 이 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50%)과 그간 자신의 악한 행실로부터 자신의 동족에게 행한 죄의 대가를 4배로 쳐서 되갚겠다고 서원하기에 이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08:10)

삭개오의 서원에 비추어, 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지 않고 그것도 절반만을 내놓았느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율례로부터 비롯된 유대인의 관습에는 불법행위(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이 20%였습니다(레 05). 그렇다면 삭개오는 120%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손해(속여 빼앗은 것)의 400%에 해당하는 값을 치루겠다고 예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 그 마음에 넘쳐난 평안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삭개오는 찾은 자가 되어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치이게 됩니다. 모두

다 내려놓은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영광으로 삭개오에게 되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우고자 애쓰는 것에 앞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룩한 마음 말입니다. '사노라면'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에 올곧게 나타내어야 할 교회가 만약 세리처럼 이 민족 앞에 서슬 퍼런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를 어찌 보아야 할까요?

삭개오의 서원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가진 소유의 절반과 세상의 지탄에 대한 대가로 4배의 배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교회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소유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금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끼친 허물과 죄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커녕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있는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자 기를 쓰고, 회개와 참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앞서 교회안팎에 근본도 배경도 없는 기복(祈福)으로 회칠(灰漆)하고자 애를 쓰고, 그늘지고 척박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보다 비단섞인 밝고 화려한 채색 옷으로 자신의 겉모습만을 꾸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돌무화과나무를 대신하여 세상의 높은 지위와 품위를 엘리베이터에 가두어 두고자 증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곳 교회에 예수님께서 유하실 수 있을까요? 그곳이 정녕 우리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사노라면'의 집이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교회는 내관이나 외관이나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장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옛날 객잔(客棧, 주막)처럼 그렇게 포근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뒤섞여 살다가 그곳에만 가면 푸근한 안식을 찾을 수 있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사노라면’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러기에 새우잠을 잔대도 오순도순 속삭이는 즐거움이 있기에 마냥 기쁘기만 한 그런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국밥을 데치는 주인장이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품을 팔고 있는 선머슴이 우리의 장로님들이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야무진 손길로 질그릇을 훑치고 닦고 있는 객잔아낙들이 우리의 집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사노라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보다 더 화려할까요?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있을까요? 비단 섞인 채색 옷이 허리춤에 둘러진 행주치마보다 더 아름다울까 말입니다.

‘사노라면’이 머물고 있는 그곳 객잔에는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설령 무일푼으로 가진 것 없이 유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채근하지 않는 푸근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위도식(無爲徒食)하지는 않습니다. 품을 팔아서라도 이를 되갚기 위해 안타깝게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노라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 객잔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단골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국밥도 남김없이 드시고, ‘사노라면’의 노래도 부르시고, 새우잠도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오순도순 속삭이기도 하시고, 비가 새는 천정도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추울까봐 아궁이에 불도 지피 주십니다. 그 때마다 한결같이 입에서 떼이지 않고 있는 노래가 바로 ‘사노라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웃 객잔에는 자주 들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자주가 아니라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곳은 이곳보다 더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객잔의 방이 99칸입니다. 각 방마다 지체 높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색(酒色)과 투전(投錢)에 빠져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항상 시끄럽고 때마다 싸움질이 난무합니다. 어느 때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가야금 소리에 어우러지는 노래는 ‘사노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면’입니다. 그들은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합니다. 주색이나 투전은 낮보다 밤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괴나리봇짐을 멘 객들이나 패랭이를 쓴 객들은 이곳에서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호화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곳 주인은 항상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곳에 차려지는 것이라곤 주연(酒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유하시려고 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오신 차가 말도 아닌, 외제 가마도 아닌, 그것도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둔 편지를 주인에게 가져다주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행여 이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을까 염두에 두시고는 그 편지와 함께 돌무화과나무 묘목 한 그루 또한 잊지 않고 전해 주셨습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행 15:16-18)

교회는 그 심령뿐만 아니라 가진 것 또한 가난하고 빈곤하여야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며, 쪼개고 또 쪼개는 가운데 청빈하기 그지없어야
합니다. 뭉치고, 거두고, 모으는 일에 힘을 경우라면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너진 것은 고사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臨在)하
여 유하고 계실 리 만무합니다. ‘사노라면’이라는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고 보아 이 지면에 바로 새겨둡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 19:21, 막 10:21)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막 12:43,
눅 21:03)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04:18-19)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눅 14:13)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06: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08:09)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야 02:01-05)